

#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 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SER no.044; あとがき

メタデータ	言語: Japanese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朝倉, 敏夫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a href="http://hdl.handle.net/10502/1603">http://hdl.handle.net/10502/1603</a>

## あとがき

朝倉敏夫

特別展「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は、2002年3月21日に開幕した。展示の計画が立ち上がり開幕するまでの約2年間、そして開催期間の102日間、さらに閉幕してからこの報告書の作成まで約1年がたった。展示資料が開催直前に搬入されたため資料チェックが後回しになり、いまだに標本資料係・標本整備係の皆さんに迷惑をおかけしている。私自身も特別展の後遺症から抜け出せずにいるが、振り返って見ると、いずれの期間も、長い時間であったような気がする反面、あっという間に過ぎてしまったような気もする。

特別展「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という一つのプロジェクトがたちあがり、それにともなう企画、収集、展示、運営、撤収、評価、反省と、それらが終わるまでの一連の行程において、さまざまな人が参与し、多大な労力が費やされた。この報告書は、そうしたすべてのことを省みて、この特別展にたずさわっていただいたすべての方への感謝をこめて、そして次からの特別展の何らかの糧になればと考えて作成したものである。とはいえ、特別展のすべてにわたって記録を残すことはできなかったと思う。遺漏があることは、お詫びしておこう。

ここでは、いくつかのことを付言しておきたい。

研究シンポジウムには、チブ研究会の皆さんに来ていただいたが、メンバーの一人である李英美さんが人類学研究のためペルーに行かれたため来られなかった。彼女は韓国での生活財調査にあたって、全北大学校の学生に各自の部屋の調査をしたレポートを提出させた。それらのレポートを読むと、韓国の地に生活財調査という種が蒔かれたように思える。

また、本展示の実行委員の一人である佐藤浩司さんは、INAXギャラリーにおいて「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その後 普通の生活展」に尽力した。その佐藤さんからシンポジウムでの発表原稿が提出されなかったのは残念である。彼の生活財調査に関しては、図録『2002年ソウルスタイル』を参照していただきたい。

ソウルの国立民俗博物館で共同開催された「近い隣の国、日本」展の評価シンポジウムの報告書も日韓両国語で刊行されたが、本報告書も、ソウル大学大学院人類学科に留学している太田心平さん、総合研究大学院大学院生の高正子さん、本館外来研究員の李愛俐娥さんなどに協力をいただき、日韓両国語での刊行ができた。

最後に「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が、見に来ていただいた多くの皆さんの記憶に残り、日韓国民交流に寄与できたとしたら、これに勝る喜びはない。



## 맺음말

朝倉敏夫

특별전 「2002년 서울스타일」은, 2002년 3월 21일에 개막했다. 전시계획이 시작되어 개막에 이르기까지 약 2년간, 그리고 개최기간인 102일간, 또한 개막해서 이 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 약 1년이 지났다. 전시자료가 개최 직전에 반입되었기 때문에 자료체크가 미루어져, 지금까지도 표본자료과·표본정리과의 여러분들께 폐를 끼치고 있다. 나 자신도 특별전의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되돌아보면, 기나긴 시간인 듯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금방 지나가버린 듯한 느낌도 든다.

특별전 「2002년 서울스타일」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그에 따른 기획, 수집, 전시, 운영, 철수, 평가, 반성과, 그 모든 일들이 끝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 그에 따른 많은 노력이 소비되었다. 이 보고서는 특별전에 관여해 주신 그런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 다음 특별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특별전의 전 과정에 걸친 작업들을 모두 기록에 남길 수는 없었다. 부족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 바이다.

다음으로, 여기에 몇가지 부언해 두고자 한다.

연구프로젝트에는, 집연구회의 멤버들이 참가해 주었으나, 멤버의 한사람인 이영미씨가 인류학연구를 위해 페루에 나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영미씨는 한국의 생활제 조사에 있어, 전북대학교의 학생들에게 각자의 방을 조사한 레포트를 제출해 받았다. 그 레포트를 읽자니, 한국의 땅에 생활재조사라는 씨를 뿌려 준 듯한 느낌이 든다.

또한, 본 전시의 실행위원이었던 佐藤浩司씨는, INAX 갤러리의 「2002년 서울스타일 그 후, 보통의 생활전」에서도 힘을 썼다. 그러한 사토씨가 심포지움의 발표원고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토씨의 생활재조사에 관해서는, 도록 『2002년 서울스타일』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공동으로 개최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전의 평가 심포지움 보고서도 일한 양국어로 간행되었으나, 본 보고서도, 서울대학 대학원 인류학과에 유학중인 太田心平씨, 종합연구대학원의 고정자씨, 본관의 외래연구원인 이애리아씨에게 도움을 받아 일한 양국어로 간행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002년 서울스타일」이, 보러 오신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일한 국민교류에 기여될 수 있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